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6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0. 1. 31(금) 15:00~18:35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승정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노조위원장님께서 새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를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새로운 노조위원장님께 박수를 보내 드리죠.

(위원일동 박수)

○박종관 위원장

- 2020년 경자년 새해의 1월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이 없습니다만 9개의 보고안건과 몇 가지의 토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 10인 중에서 8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은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 266차 회의에서는 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 등 2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1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된 267차 회의에서는 1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무처장의 보고를 받으셨습시다만, 혹시 전차(前次) 회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보고안건은 총 9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무처장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4페이지입니다.
9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7개는 소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그리고 2개는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추진계획과 2020년 예술극장 기획공연 <아르코 파트너> 추천 및 섭외 결과 보고까지 9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별도로 보시면 7기 위원 선임 추천의 건 등 몇 가지 추가 보고안건이 별도의 자료로 마련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이 보고를 해 주신 대로 소위원회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는 회의자료 5쪽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전략 소위원회는 누가 보고를 해 주시나요?

○전효관 사무처장

- 소위원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장님이 하셔도 될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직원이 보고를 해 주세요. 김혁수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김기봉 위원님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기봉 위원

- 미래전략 소위원회는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이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미래전략 소위의 활동영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갖고 12월과 1월에 2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예술위의 조직개편이 돼서 정책파트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책파트를 강화하는 미래전략 소위가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사무처에서 제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 특히 정책은 축적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단위에서 하지 못 하는 예술위만이 해야 될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 소위 안에서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한 두 가지 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향후에 빅데이터화가 정책연구나 정책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예술위 쪽의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구자들한테 기초DB가 제공되어야 다양한 연구논문들이 제출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술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DB를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연구자들이 다양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소위원회 보고를 쭉 받고 나서 논의사항 등이 있으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남북 및 국제교류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는 10페이지부터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10페이지 제7차 남북 및 국제교류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20일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 결성식 때 인근인 안국역에서 모였습니다. 총 7인 중에 4인이 불참을 하셔서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문학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문학포럼 개최 계획(안)을 검토하고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 간 MOU 체결계획(안)을 검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정 위원

-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한·러 30주년이잖아요? 내년에는 31주년이고요. 제가 한번 여쭙봤는데 예술위원회에서도 러시아와 하려고 했는데 파트너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국에 있는 기관도 초청하고 싶고 자기들도 오고 싶었는데 그 나라의 특성상 키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러시아와 관련해서 제가 역할을 해 드리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지난 1월에도 진행을 해서 8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고보다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8번에 거치는 동안 초반에는 주로 전통예술 분야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주로 들었고 예술위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몇 가지 특징이 전통예술 같은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국공립에 관련한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는 공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개인들의 공연은 대부분 1회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분석한 것이 “특히 지역에서 기획 인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하게 없다.” 그런 논의가 나왔고요. 그런 논의를 토대로 해서 이후에 필요한 사업제안 2가지를 했습니다. 지난 7차와 8차는 사업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술위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민간후원을 활성화 하는 방안입니다. 진주의 단체 중에서 2,000명의 후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전통예술공연 단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매달 후원을 하면서 안정적인 재정도 되지만 관객 확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예술위의 사업 중에서 그렇게 민간후원을 활성화 하는 사업을 만들 수 있겠나?”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후원회원으로 확보하면 그 중에 얼마의 지원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예경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한지협과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지역문화재단에서 기획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단과 예술위가 매칭을 해서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워낙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얘기를 못 한 것이 현장 예술인의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게 거론되었는데 전통예술을 하는 예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나 문화재청 쪽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예술위가 할 일은 없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논의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안 등은 간단하게 1페이지씩 제안서를 써와서 활동보고서 같은 형태의 보고서를 정리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최창주 위원

- 너무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요. 남북 및 국제교류의 건도 직접적으로 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85년도 같은 경우 통일부에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거론할 수도 없고요. 한국예술공론화 같은 경우 이희경 위원님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기획자 양성을 해야 하는데 기획자를 양성할 수 있게 사무처에서 모집을 해 달라는 것이

쥬. 지금 한국에서 기획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분석·과약하는 곳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강의를 하든지 할 테니까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계속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크게 2가지 성격의 소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 자문을 하고 정책으로 제안하는, 모두 검토하지 못 하니까 소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는 등 우리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소위가 있는 반면, 공교롭게도 제가 하고 있는 한국예술공론화나 예술가치확산은 그런 것과 별도로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적인 분야에서 거론해야 될 주제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위가 만들어질 때는 제가 위원이 아니었고 제가 첫 회의를 하는 그날 소위를 맡게 되는 바람에 “예술가치확산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반부에는 예술가치확산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 몇 군데의 예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소위의 전문가들의 그런 것에 대한 발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사업은 담당부서가 후원센터인데 어떻게 보면 후원센터의 일로만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아마 후원센터가 저희를 지원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예술가치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시간들이 많았는데 지표 얘기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아젠다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중간에 방향을 어떻게 틀었느냐 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예술가치확산을 발굴해서 알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 중에 그것과 가장 근접한 게 순회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회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커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예술가치확산 소위 같은 경우 한 달에 한번 모여서 2시간, 3시간 회의를 하고 끝낼 수 있는 회의가 아니었거든요. 왜냐 하면 계속 연구를 하고 생각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시는 소위의 위원들에게 그런 과제를 안겨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정책 용역을 의뢰하였고 관련된 워킹그룹과 같이 서포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해서 9월, 10월에 연구용역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치확산에 대한 연구용역 팀이 들어와서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일찍 시작을 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 텐데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연구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연구팀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오픈 콜로키움을 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재정이 확보가 되었으니까요. 그 팀이 주축이 돼서 오픈 콜로키움을 열었고 오픈 콜로키움에서 예술가치확산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것을 지표화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론 그리고 구체적인 순회사업의 성과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오픈 콜로키움을 열었고요. 그 오픈 콜로키움을 끝내고 나서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예술위의 정책적인 기초로 제안할 수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회의를 지난 10차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콜로키움에는 굉장히 많은 현장예술가들이 와서 여러 종류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소 산만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 예술가들이 예술가치확산에 대해서, 특히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의 간격이 매우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체 평가를 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가 간단하게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 활동보고서는 예술가치확산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얘기를 했고 그게 앞으로 2번의 회의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이 참여하신 강윤주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박종관 위원장

- 질문을 받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현장소통 소위원회 보고를 받기 전에 일단 4개 소위원회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일단 논의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문체부에서 작년에 예술가치확산에 대한 영향평가인가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보고서를 쓰신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실제 정책화하기 위해서 문체부 차원의 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화비전2030에 이 부분이 의제화 되어 있으니까 아마 후속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그래서 예술가치확산을 전국적으로 퍼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류재수 센터장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트 디베이트’ 이야기는 그 결과를 보고했던 것이고,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당연히 예술위 차원에서 어떤 접근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정책의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다시 요약해 드리면, 미래전략 소위원회의 경우 1기 위원회 초기에 구성이 된 위원회인데요. 주요한 목적이 아르코비전2030에 못 박혀 있었던 소위였고요. 기능들이 잘 작동되어서 아르코비전2030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이후에 후속계획 같은 추가 설정이 부족한 형편으로 소위원회가 가고 있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및 국제교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비활성화 문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소위원회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의 민간의 후원 활성화 사업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재원확충 소위원회의 일인데요. 당장 필요한 곳에서 의견을 낸 것이니까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에서 낸 정책의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예술 기획자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논의에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유사 사업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제외되어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역인 현장 예술가의 처우 개선 문제에 관해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초기 방향 설정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워킹그룹화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건이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으니 후속과제를 연구용역으로 풀어서 이른바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관한 문제를 예술가와 함께 예술위원회가 어떻게 견인해 낼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 사업으로 이 문제를 풀고 최종 보고서 작업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할 것이라는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난 것들이, 보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성격이 크게 사업을 검토하는 형태의 소위원회와 정책을 개발하는 형태의 기능적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소위원회는 엄연히 자문활동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소위원회 활동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검토한 4개의 소위원회를 대략 검토한 결과 소위 내에서의 일정한 정도의 한계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당면한 의결사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위원회 활동보고는 주로 문건으로 보고를 받았고 자주 논의하지는 못했지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함으로써 향후 7기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강홍구 위원

- 다소 엉뚱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의 발표를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위원회에 관한 일이 아니라 문체부 직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체부 직원들이 저희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만나보면 사업이 증발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 문체부의 고위직 사람들과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예술가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전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예술가치 소위원회는 처음에

문체부 직원들한테 “예술에 대한 가치가 뭔지?”, “예술이 뭔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예술가에 삶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예술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저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실질적으로 행정집행이나 정책, 기타 등등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가 될 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체부가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많겠죠. 그런데 진짜 만나보면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승정 위원

- 제가 얼마 전에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방금 강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기초고요. 기재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광축제가 열리면 유발효과라고 해서 “근처에서 밥을 먹고 가고 관광지에 와서 200억의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예술 공연이나 이런 것도 영똥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나중에 경영평가에서도 뭔가를 내 놓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나는예술여행이나 여러 가지 공연이 평가 때문에 1,000만 원짜리 공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으로 쪼개서 하고 1,000명이 봐야 될 것을 10,000명이 보게 한다든지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항상 기관평가에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경 대표님한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영똥하게 라도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술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했을 때의 비용을 억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예경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연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정 위원

- 그러면 아까 강홍구 위원님이 생각한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고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신다면 협의를 해서 예술위에서도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희경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유네스코에서 얘기했던 지속발전 가능한 20개의 테마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는 환경, 일자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있고 커뮤니티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의제들이 너무 동떨어져서 가고 있으니까 접점을 찾아서 하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발굴이 안 되었다는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예술위의 사업들은 그냥 창작만 하고 몇 명이 들어왔다는 양적 평가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술가치 발굴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다른 맥락에서 그런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지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지표까지 가게 되었는데 주로 순회사업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경영평가에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좋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은 없을까? 이것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

고 그것을 경영평가에 홍보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사회적 가치를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하는 일자리 등 몇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술가들 자체가 자기가 하는 활동을 스스로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사업을 하는 중요한 몇 개의 팀이 있어요. 성공적으로 했던 팀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술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지역의 일들을 하는데 의미를 재규정해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 등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 누군가 거리를 두고 전체적인 우리 사업의 의미나 방향 등을 점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치확산은 그냥 문화예술센터보다 정책 쪽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장인터뷰를 예로 들으셨는데 오픈 콜로키움도 하셨어요. 내부에서 소통이나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배경으로 실제 이런 활동을 진행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관된 각종 연구보고서들을 토대로 논의도 이어갔고요. 결국은 그것이 연구 사업으로 이어졌고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임에도 소위원회 내에서는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목표대비 성과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희경 위원

-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사실 다른 데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술위 차원의 소위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일이라서요. 사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모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같이 토론을 하려면 성평등 소위처럼 2주에 한번 만나서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요성은 알겠고 방향도 알겠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소위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과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차원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어 보여요.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는 1기 위원회 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부르짖거나 주장하는 게 예술위원회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문화예술계 넓은 범위에서 일상적인 주장이 되었어요.

○이희경 위원

- 첫 번째 회의에서 한 일이 1기가 했던 자료를 검토한 거였습니다. 결론은, 상황이 15년

동안 너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책보고서를 냈었는데 그 정책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였느냐 하면 테라피 쪽이었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주로 그 쪽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영국예술위에서 했던 작업들을 가지고 와서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예술가치 방향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예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일단 고민의 터전을 마련한 것만 가지고도 소위원회 활동의 가치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 및 국제교류 소위원회가 이렇게 비활성화 된 이유는 뭘까요?

○강홍구 위원

- 소위원회가 너무 많고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7기 때는 정리할 필요가 확실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겹치는 부분은 모두 정리해서 묶고 콤팩트하게 가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활성화 되고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써는 모든 위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동시에 다른 데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이나 국제교류는 당연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소위를 운영하면서 결말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 위원님은 위원장이셨으니 말씀을 해 주시죠.

○나종영 위원

-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남북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전략을 세우기는 힘들니까요. 그런데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해서 기관 사업이나 자료를 정비하는 차원이지 직접적으로 남북문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미리 예견을 해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근본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남북과 국제라고 하는 부분을 섞어서 소위원회를 운영한 것에 대한 무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희경 위원

- 국제는 거의 얘기가 안 되었죠.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니까 국제가 논의의 밖으로 벗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라는 사업의 폭이 좁고 단순화되어있어서 사업 중심으로는 논의 범주에 들어갈 내용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였지요.

○이희경 위원

- 오히려 국제를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차라리 거꾸로 현실 한계를 넘어서는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요?

○이희경 위원

- 예. 지금은 어쨌거나 글로벌화가 되어 있고 국내사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 교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봉 위원

- 남북문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상설 소위로 다뤄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북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는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국제교류 부분 같은 경우 예술위만 국제교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경도 하고 있고 국제문화교류진흥원도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중복 업무가 상당히 많고 관계된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현장 예술인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방향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두면 예술위가 지원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예술가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또는 해외에 있는 예술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소위 활동의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 제가 대항시절에도 그랬지만 터키, 이란, 대만, 홍콩을 다녀왔었는데요.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출할 때 공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 보내느냐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셰익스피어 등 서양 작품을 각색해서 내 보내는 것과 진짜 우리의 프로그램을 내 보내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틀리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립단체들의 공연을 보고 “너희 나라의 것은 없냐?”, “너희 나라의 것을 보여다오.”, “왜 우리나라 것을 따라해?” 그러니까 내 보낼 때 그런 심사 자료를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냐 하면 끼리끼리 안다고 해서 대충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정 위원

- 그리고 우리 안의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공모를 할 때 제가 예술위의 해외 공모사업을 합니다. 하면 계획서를 낼 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비행기비용 등을 정리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 된다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러면 사람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해외의 신뢰도도 굉장히 깨질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능력이 있는 단체가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선정되어서 1년치 프로그램을 짜야죠. 이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승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야 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원제도 내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및 국제교류 소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되고 소위원회의 결론이 위원회로 올라왔으면 이상적이었을텐데요. 이게 가감 없이 위원회에서 역할의 구분 없이 의견이 제시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소위원회가 있는 것인데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저희에게 주어진 소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은 원칙에는 공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모라는 것은 어쨌든 위원회는 아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의 판단하는 대로 가라는 것이 공모의 방침인데요. 사실 지원체계는 어쨌든 현장에서 그들의 수요와 욕구로 주어지는 공모사업과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하고 활성화 시켜야 하는 점점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기획과 추진력에 대해서 사업구성이 양분화 되어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나 국제교류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추진에 대한 것을 잡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남북교류 사업 같은 경우 3억이 있는데요. 작년에 6·15로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그 예산에 대해서도 보조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의 한계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의 예산 구조들이 기획사업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어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요나 요구들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공모에 접수하면 심사위원이 심의를 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서는 풀려나갈 수 있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 4개의 소위원회를 대략 검토하면서도 이른바 위원회 간의 편차는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왕성한 활동역량에 대한 소위원회의 성과와 동시에 방만한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소위원회를 검토해 보고 전체 소위원회와 관련된 의견들은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17쪽은 현장소통 소위원회인데요.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32차에서 37차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논의하고 진행되었던 의제들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8차 회의의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차 결과보고는 44쪽입니다.

해당 소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김기봉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8인의 민간위

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님들은 다른 소위원회와 조금 다르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기가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들은 자료 중간에 보시면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와 관련하여 안건이 있는데요. 지난 12월 19일날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체부의 시각예술과장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요 내용은 45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일단 관련된 공청회를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짚어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요청한 내용은 3월에 이루어지는 공청회에 앞서서 실태조사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예비 좌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 협조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에는 안건2라고 해서 연극분야 공유경제 플랫폼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제와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발굴하는 정책의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자체 발굴한 예술분야 경제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 주제와 연관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가능성 그리고 그런 것들의 토대로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장르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극분야는 1차 간담회를 12월 24일에 했구요. 문학 분야는 현장 좌담회 11월과 12월에 3회 정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성평등 소위원회의 기능과 약간 중첩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 자체의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엔 설문조사를 준비해서 시행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개선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 39차는 워크숍 형태로 가졌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다음 회의 때는 보고를 드릴 예정이지만 여기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은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3기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고요. 그 내용을 성안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김기봉 위원님, 소위원장이시니 추가하실 게 있으면 말씀 하시죠.

○김기봉 위원

- 저희는 예술위의 지원사업 업무보다는 예술생태계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했습니다. 1기 때는 공정보상체계를 만들고 그 부분을 예술위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권유를 드렸고요. 2기 때는 '예술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는 것을 공론화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지역에 내려가서 보니까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이 작품을 보관할 때가 없어서 태운다고 합니다. 일정 정도의 작품이 모이면 태워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원만 하면 끝인가? 실질적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나온 성과물은 그 자체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인가? 라고 하는 문제 인식이 있어서 다른 장르들도 유사한 일들이 있는지를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제를 만들어보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술 공유경제 플랫폼’ 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정책을 개발해 보면 어떠냐는 게 한 축을 이루어서 왔고요. 다른 한 축은 현장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고발도 있을 수가 있고 제안도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들이 저희 현장 소통 소위에는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피와 관련된 제안이 접수되어서 그것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토론회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복지위원회와 공동 개최를 했다는 게 타 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문체부 담당 과장을 불러서 예술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 문제 제기를 풀어나가는 실행을 했다는 점에서 이후 소위의 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실 보고서가 올라온 소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재원확충 소위원회는 살아 있는 것이고요. 2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 성평등 소위원회나 평가소위원회, 지역협력 소위원회, 예술정책 소위원회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재원확충 소위원회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는 소위원회 개최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고 작년 하반기부터 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지요? 그리고 7기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보다 폭넓은 논의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재원확충 소위원회, 성평등 소위원회, 평가 소위원회, 지역협력 소위원회, 예술지원정책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보고서가 올라와야 종합적인 토론과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운영 형태나 장단점의 문제, 성과와 보완점이 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7기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전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5개 소위원회 보고서를 모두 받아보고 나서 다음 위원회 때 추가 논의를 할 것을 제의 드립니다.

○강홍구 위원

- 그렇게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종영 위원

- 6기 위원들이 7기 소위원회 방향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강홍구 위원

- 방향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방향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구성요구까지는 논의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2020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추진 기본계획(안)입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로 후원하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1억 규모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사업개요를 문체부와 협의해서 성안한 내용입니다.

51페이지 세부 추진 방침을 보시면 달라진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12개월의 기간을 설정해서 진행했었는데요.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체부에서는 회계연도 안에 무조건 당겨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2020년도에는 심의는 진행을 하되 선정 주기를 분기별로 4회 하던 것을 3회로 당겨서 3분기는 저희가 도서를 선정해서 보급처에 배포를 하고, 4분기는 심의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은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다가 다시 예술위원회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저희한테 이관된 이후에는 창작자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선정 규모를 500종에서 550종으로 늘리는 것으로 협의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판사에서 저희가 구매하는 1종당 구매 금액이 약간 떨어지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체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이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선정규모는 550종이고 종당 770만 원 이내의 도서를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서를 구매하면 약 1,500군데의 보급처에 도서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계획을..... 이것은 문체부와 협의가 완료되었구요. 그래서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의 자료들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질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작년에 옴부즈맨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잘 하시겠지만 지원의 대상이 출판인지 아니면 창작자인지에 대해서 예산의 타겟팅을 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도서 때는 출판사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제작년에 이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왜 출판사를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학부장님이 직접 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사업이 급히 이관이 되었구요. 출판사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과 유사한 세종도서 나눔사업이 출판문화진흥원에서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사업의 취지, 예술위원회로 이관된 배경 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내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작가들이나 출판사를 위한 설문조사나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창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창작성과물의 선결과 보급 쪽으로 착안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1종당 770만 원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인세 등의 명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출판사에 가이드를 하는 겁니까?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저희가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의 선정도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지에 별도로 고지를 하고요. 그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 제작 분에 대한 인세를 지급한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것을 현장소통 소위원회 비상체계라든지, 최근 문학계에서 원고료나 문학상 상금에 대해서 공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인세가 지급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인세는 정가대비 10%를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게 통상적인데요. 저희가 이 도서를

90%에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정가제 때문에 90%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가로 구입하고 나머지 10%를 작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의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해서 창작자들에게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기봉 위원

- 문체부의 사업을 저희가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죠?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해 왔던 것이 위탁할 때 사업비만 주고 그에 따른 인력은 안 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실무인력 5명을 파견직으로 뽑겠다는 거잖아요. 이번 정부는 점차적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것이 모토인데요. 사업의 업무와 내용들을 보면 업무의 숙련도가 축적되면 업무를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파견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저희가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는 어쨌든 문체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원수, 고용 형태 등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할 수는 없고요. 계획에도 담겨져 있지만 사실상 파견직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직이 잦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일을 하다가 다른 계획이 생기면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이관하고 저희 소관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문학 분야 사업 예산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50억 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규인력을 채용한다거나 배정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계속해서 문체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참고로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르면 9개월 이상 2년 이상 연속으로 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 아니라 국고사업이라서 현재로는 힘들고요. 나중에 기금화가 돼서 계속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는 구조가 되면 기획재정부와 얘기 후 T/O를 받아서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예, 잘 들었고요. 51쪽에 보시면 이 사업을 위해서 비상임 문학회 운영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하실 때 남녀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고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사항은 2020 예술극장 기획공연<아르코 파트너> 예술가 추천 및 섭외 결과 보고입니다.

정영순 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코 파트너는 예술극장 기획공연으로 전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전년도와 같이 예술극장의 대표 레퍼토리와 공연예술 쪽의 주목할 만한 창작자를 발굴해서 기획공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고요. 저희 극장에 올릴 수 있는 무대양식화 된 공연, 연극, 무용 중심으로 창작자들을 선발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5억 2,064만 원인데 저희 순수 제작비는 4억 6,000만 원 정도로 제작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는 저희가 1월에 예술정책지원 소위가 따로 열리지 않아서 해당 분야 위원님들께 섭외순위를 결정하는 외부 전문가 추천을 받았고요. 별지로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섭외를 결정하는 순위결정 전문가들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술가 후보를 추천하는 전문가 회의를 진행해서 파트너 예술가 후보를 추천하였는데요. 별지를 보시면 전년도 아르코 파트너 모니터링 라운드테이블 참여 전문가와 2018년도 아르코 파트너 모니터링 라운드테이블 참여 전문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조금 개선된 부분으로는 아르코의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저희 PD들과 저 그리고 극장PD들 저희 지원사업의 공연예술 분야 담당자들이 내부 전문가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추천을 해서 받았던 예술가 후보군으로 가지고 섭외순위 결정 자문회의를 진행했고요. 자문위원 명단은 60쪽에 나와 있는데요. 18인의 추천을 받았는데 일정이 맞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보시면 예술가 섭외 결과가 나와 있고요. 현재는 연극분야 2인, 무용 분야 3인이 섭외되었는데 무용 분야는 정보경, 박녕쿨 씨가 동시에 공연하는 것으로 참여할 예정이고요. 안무가 1인이 계시는데 그 분은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무용 쪽은 섭외순위를 결정할 때 정보경, 박녕쿨, 류장현 씨와 장혜림 안무가를 고려해 달라고 해서 전체적인 일정과 금액을 보고 섭외여부 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으로 붙여놨는데 질문을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섭외순위 결정 내역을 보시면 연극에 27인, 무용 23인 중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예술가가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이것은 저희가 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심의부와 협의해서 별도의 과정을 논의해서 전문가그룹을 결정할 때 진행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명단은 추천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했습니까?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섭외순위 결정 내역은 이런 예술가들을 추천하는 그룹을 보면 참여하신 외부전문가, 예술가그룹, 평론/기획그룹, 내부 직원들까지 해서 각 2인씩의 후보를 추천하셨고요. 2인의 후보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최창주 위원

-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한국 것을 전공하신 분이 없어요. 모두 서양 것 위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최창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답변이 있습니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들이 참여를 같이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선정위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한국창작무용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을 극장에서 올리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2019년도에도 최순호 씨라고 하는 한국무용을 하는 안무가가 했고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정보경 씨가 있고요. 장혜림 씨 같은 경우가 한국창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현대적으로 계승·발전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창주 위원

- 답변이 안 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제가 항상 서양문화예술위원회로 이름을 고치자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보고를 접수 받으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에 대한 한시적 제한 조치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에 대한 한시적 제한 조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모두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0월 22일에 제 1차 통합선정위원회를 가졌고 제260차 위원회 전체회의 때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운영의 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서 2차례의 위원회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셨고요. 결국 위원장님께 위임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위임사항에 따라서 1월 8일에 내부적으로 “2020년 공모사업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에 대한 한시적 제한 조치”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문서로 남겼습니다.

추진목적은 나와 있듯이 신뢰 구축을 위해서 심의위원 후보단 중 수사의뢰대상자 또는 징계 확정자, 블랙리스트 또는 미투 관련 논란이 있는 후보단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심의위원 활동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첫 번째로 저희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인사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인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인사입니다.

세 번째는 2015-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재직된 인사입니다.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케이스바이케이스로.....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를 만들면서 블랙리스트가 기관별로 활발히 작동하는 시기를 뒤서 기관별로 관련성 검토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 기관장님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블랙리스트진상조사단으로부터 기관에 징계요구를 받은 인사입니다.

이 네 번째 같은 경우 예술위원회의 징계 대상자는 저희가 명단을 받았는데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체부의 협조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이 내용을 공유해서 저희 심의위원 후보단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네 번째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성이 있다고 기사화 되었거나 공론화된 사실이 있는 인사로 심의위원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활동기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미투와 관련된 대상자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에서 말소되는 기간까지 활동을 제한하는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②항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었을 때, 특히 유죄인 경우에는 ①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리스트 관련자입니다. 위 ‘대상’의 ③, ④, ⑤번이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을 제한하는 게 적합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구성할 경우 저희가 적격자 지정방식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활동에 대한 제재를 취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숙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추진목적에 심의위원 후보단 중 수사의뢰대상자 혹은 징계 확정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사의뢰대상자는 이 밑에 있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것만 해당이 됩니까?

○박종관 위원장

-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일반법 외에 성폭력 같은 경우 무죄추정의 방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자의 지원 대상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을 모시는 부분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련해서만 한정을 했습니다.

○조기숙 위원

- 그러니까 수사의뢰대상자가 성폭력 관련자와 블랙리스트 등 2가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항들도 있잖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한시적 제한 조치는 블랙리스트 대상자가 심의위원 후보단 풀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조기숙 위원님의 말씀은 일반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를 들면 횡령을 한 전례가 있는 분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운영규정을 보면 심의위원으로 자격이 될 수 없는 자로는 불공정, 금품, 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이미 기존 제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이 분들은 모실 수가 없고 중간에 알게 되면 해촉 사유가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시 확인 차 묻습니다. 조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 제도가 있어 제외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조기숙 위원님 이해 되셨나요?

○조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 한시적 제한 조치는 대부분 위원회 때 나온 기존 논의사항들을 성문화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2차 선정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 25일 1차를 열었고요. 2021년 정시공모가 11월부터 심의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2021년 정시공모 1차 회의는 10월에 열어야 하고 저희가 10월 전에는 분기별로 1번씩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월에 1번, 5월에 1번, 8월에 1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기준으로 신규 진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10월 25일에는 총 1,180명을 저희가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모셨는데요. 그중에 749명은 기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요. 신규로 모신 분들이 4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전문가위원까지 등록하신 분들이 1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선정위원회를 열게 되면 적어도 이 정도의 숫자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전문가위원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약 2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재작년까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1,040명 중에는 약 250명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저희 풀에 들어오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날짜를 정해 주시면 그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날짜를 정하는 것은 정기위원회 회의를 잡을 때 같이 논의해서 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비공개로 논의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박종관 위원장

- 오늘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공론화 개최 결과 보고 및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요. 박두현 본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위원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공론화가 지난 1월 7일부터 어제까지 3차례 열렸습니다. 첫 번째 1월 7일 회의에서는 강윤주 위원님께서 예술위원회의 역할을 실제 업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는 위원 선임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발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위원회가 참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1차 때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문화부에서

발제를 했고요. 예술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 회의에서는 크게 위원회 구성 문제와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요. 현장에서 지역 위원 쿼터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에 대해서 다른 쪽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현장에서 사전 질문을 받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토론회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문화부에서 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제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원 대표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성별대표성을 특정성별 60% 초과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규로 8명을 위촉하게 되는데 남녀 각 4명씩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대표성에 대해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을 50:50으로 추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격요건을 10년에서 5년 이하로 하향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대표성 문제는 지역 대표성 확보의 한계가 있고 지역예술인 선임기준 설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쿼터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또 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회 중심의 추천 권한을 법인미등록단체나 개인 예술가도 추천할 수 있도록 열었고요. 10명 내외의 공동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에서 추천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술위원회에서 추천까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추천할 때 추천사유서를 첨부해서 추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는 추천위원 명단을 공개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종후보자 공개 시 추천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추천할 때 추천기준도 함께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 방안에 대해서는 2배수 공개를 한 다음에 후보자의 비전, 역량 확인을 위한 면접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부는 예술위원회의 위원추천위원회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2월부터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추천위원회 후보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 쪽의 생각에는 소위원회와 사무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문체부의 위원추천위원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고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구체적인 추천 절차는 다음 주 소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추천하는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은 사무처의 의견을 들어서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요. 전체적으로 소위원회와 사무처에서 추천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이 문체부에 위원추천위원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3차례 토론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최창주 위원님과

김기봉 위원님, 강운주 위원님 등 4명이 참석을 하였고요. 나머지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는 내용이니깐 먼저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의견들을 모았으면 합니다.

○최창주 위원

- 예. 저는 2차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제목이 ‘절차 개선을 위한 공론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절차적인 것만 토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석이 아니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기 위원이 들어올 때 국악전공자가 들어오면 이런 제안을 못 할 겁니다. 왜냐 하면 국악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잘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통문화라는 것은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동서양이 함께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그런 제 바람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안 좋게 생각을 했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과장이 있으니까 “한국전통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발족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개선의 방법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면 큰일이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자면 국악전공자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최창주 위원

- 아니죠. 1기에서 5기까지는 국악전공 교수가 위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정리가 잘 되었어요. 그러나 전통문화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장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만 했기 때문에 동서양이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희경 위원

- 저희가 지금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적합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인력풀을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추천을 할게요.

○이희경 위원

- 그런 쪽을 고려하실만한 심의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문체부는 풀 안에서 그것을 얘기할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주시면 되겠죠.

○박종관 위원장

-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인력 풀도 반영할 것이고 의견도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 절차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여기 보고서에는 제가 2차에 참여했는데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빠지게 된 이유가 뭐죠?

○이희경 위원

- 모든 얘기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오늘 여기에 요약한 내용은 반절 이상이 “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몇 시간동안 논의된 것은 안건으로 담지를 않았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제가 3차례에 모두 참석했구요. 제가 기억하기로 7월에도 저희가 주최한 공론화를 한번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파서 가지를 못 했는데 페이스북으로 모두 봤고요. 이것을 보면서 “위원이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니까 “위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위원회 역할이나 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어제 나온 얘기를 요약해서 추천을 해야 되니까 추천 방식을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안하신 얘기 중에 소위원회 위원 1인이 그냥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원회가 열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논하고 몇 분을 제안해 달라는 얘기인지? 어떤 것인가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원칙적으로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 방법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문화부의 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천위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력풀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인 것 같아서요.

○박종관 위원장

- 다만, 논의를 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천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몇 명을 추천해 달라는 것도 없죠?

○이희경 위원

- 그런 것도 없어요.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것이잖아요. 현장소통 소위원회나 다른 소위원회에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하고요. 그 대신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한번 수렴을 해야 되겠죠.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박종관 위원장

- 회의 자료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사무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문체부에 후보자를 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방법이면 되겠습니까?

○나종영 위원

- 위원은 소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추천을 받아야죠.

○나종영 위원

- 그냥 위원이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추천하시면 되지요.

○나종영 위원

- 문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풀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문화부의 입장에서는 성별대표성이나 세대대표성을 고려형 구성 하려고 하니까 풀이 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저희가 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사무처에서 받아서 비율에 맞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박종관 위원장

- 이 논의가 왜 필요하냐 하면, 지난번 위원을 추천할 때는 일종의 인력풀 보완 차원에서

하루 전에 급하게 사람을 불러달라고 해서 상의할 수순도 없이 명단을 제출했거든요. 그것도 일부 영역에 관해서요.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이희경 위원

- 어차피 이것은 진행이 될 거니까 거기에서 오기 전에 우리가 풀을 만들어놓자는 거잖아요.

○강홍구 위원

- 각 소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절차는 소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이지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추천위원 자체도 장르별로 고려해서 추천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인원 제한은 없어요?

○전효관 사무처장

- 예. 다만 지난번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할 때 보니까 문화부도 장르 쪽은 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체에서도 추천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문화일반이나 이런 쪽은 적은 느낌이 있어서요.

○박종관 위원장

- 더 궁극적인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좋은 위원님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좋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구성을 위해서는 넓은 인력풀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는 없고 추천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한계는 있으니까요.

○이희경 위원

- 지금 어쨌거나 연극, 전통예술, 문학, 미술 등을 고려해서서 적합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기숙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여자 위원들과 위원장님을 빼고는 바뀌시는 거죠?

○이희경 위원

- 예, 8인이 바뀌는 거죠. 제출을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해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아마 추천위원회를 해야 위원 공고를 내는 것이죠? 아마 2월 12일 정도 내외면 아마

추천위원을 구성할 것 같아요.

○강홍구 위원

-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 전에 소위를 소집해야겠네요.

○박종관 위원장

- 강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어요. 위원 개인의 인력풀보다 아무래도 소위원회 인력풀이 넓으니까 소위원회의 힘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지요?

○김선출 감사

- 소위원이 자기를 추천할 수도 있고 소위원회 이름으로 추천할 수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단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소위원회 전체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을 그냥 후보위원으로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기봉 위원

- 아르코혁신TF(안)과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아르코혁신TF는 장기적 추진체제로 국가예술위원회를..... 그 문제는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 안에서 어떻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느냐가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문체부의 담당자들은 자기들 부처가 바뀌면서 업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술위에 있는 분들은 모두 예술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라는 문제는 향후에..... 위원들이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원들 속에서 위원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위원장을 뽑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술위는 추천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예술위가 구성 권한을 가져야지 왜 추천 권한을 갖느냐?” 라는 질의와 토론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 법규상 문체부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면 “문체부와 예술위가 공동으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을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을 선임할 것이냐는 장관의 권한. 이 2가지가 예술위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문체부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면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면접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함께 일할 분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공론화 평가 회의를 하기로 했

어요. 3번을 한 것에 대한 평가 회의를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추천을 할지? 아니면 거부 할 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것인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예술위가 추천권이 아니라 구성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추천을 하는 것보다 구성권을 갖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법령상 문제도 있고 법령이 아니더라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권을 갖는다는 문제를 합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토론을 이어 가는데 다소 넓은 범위로 논의가 확장되는 느낌도 받습니다. 정리도 할 겸 해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상임 감사가 위원회 보고사항이 있다고 하니 감사 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김선출 감사

- 이것은 감사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공유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감사원이 올해 점검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오늘 공공기관 감사를 비롯해서 각 교육청, 중앙부처 그러니까 문체부 감사관님도 오셨더라고요. 행자부도 다 오셨습니다.
올해가 공공감사법 10년이라고 합니다.
감사 방향은 “정부 재정지출이 많아지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실적” 이런 것들을 점검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의 말기가 다가오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되는 것을 적어 봤습니다.
‘규제개혁’, ‘적극행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콘텐츠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가가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생과 생활현장이 체감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가령 일자리와 서민금융, 안전관리 등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조금 등 제도적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이 해니까 선거공직기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국민서비스 지원 부분들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행복을 창출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당부한 것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었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부서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부담이 아닌 지원이다.” 감사원장님이 항상 이야기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 그리고 컨설팅 감사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김영관 감사님도 오셨는데요. 한국문화진흥(주)에 대해서 이첩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의 보고 감사합니다.
 김기봉 위원님 말씀에서 논의가 끊어져서 거기에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 선임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권을 강화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 주시죠.

○김기봉 위원

- 저희가 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하자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위원장 임기와 위원의 임기가 달라요. 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같이 해야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은 기관운영법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술위를 예외 규정으로 두면 괜찮은데 예외 규정을 두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하면 문체부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예술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시동을 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 선임 관련해서도 기존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법령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자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략이 필요한데요. 문체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토론회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안 났죠?

○김기봉 위원

- 면접 검증은 할 것 같아요. 검증 면접에는 문체부와 예술위 그리고 현장은 어느 현장이냐는 문제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2인, 예술위원회 2인으로 해서 면접에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듯이 구성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선임 절차 자체를 현행 법규에는 과정이 명시되어 문체부에서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의견은 내겠지만,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의 문제는 지금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지요.

어제 대법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처장이 정말 짧게 보고를 하시고 위원회의 큰 논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어제 나온 보도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아마 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여러 단체에서 성명서가 나와서 대략의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적용된 것 중에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지원배제와 관련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하지만 통상적인 보고를 하거나 진행 절차 같은 것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고법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주문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요. 7페이지를 보시면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해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하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부분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본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데 「의무 없는 일 -2」에 보시면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보고 절차나 진행사항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조금 보완하면 1심과 달리 2심에서 직권남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구형보다 판결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늘어난 부분을 다시 환송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히 격앙되어있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총체적인 자율권 손상의 결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해 주지 않음으로 앞으로 자율권 문제에 대해 현실은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추가 자율권 손상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위원들과 논의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무슨 성명서를 내거나 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악플이 많은 사무처 전체를 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견인하여 결과적으로 자율권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예술계의 의견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기 환송이 블랙리스트 전체의 위법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전제가 있고요, 반면에 명확하게 대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규정해 주지 않음으로 국가 폭력인 블랙리스트 자체에 일종의 혼돈이 생겼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대법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법리를 보는 부분이고요. 그 법리를 보는 부분에서 직무권한, 수행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라고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제 2라운드도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예술위가 그것을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서 같이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런 절차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논의는 필요하겠다.” 저희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외부에 의견을 표하기보다 내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거든요. 우리 사무처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것이라도 공론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봉 위원

-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회의 때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현장소통소위는 당연히 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 내부에서도 본부장, 부장님들 중심으로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보면서 진행과정을 11일날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잡아보면 어떨겠습니까? 이것은 길게 살펴봐야 할 지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안이 생기면 단톡방에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논의를 완성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희경 위원

- 뒤에 정리한 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내용을 요약하신 건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아닙니다. 보도 자료를 출력한 것이고요.

○박종관 위원장

-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리고 16쪽 마지막 얘기가 대법원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부 지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에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예술위 등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의 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여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원심 판단에 관하여 일부를 수긍하고 일부를 법리오해·심리미진으로 파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확정판결이 아니고 다시 고검에서 재심을 하라는 것이죠. 11일 간담회 때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사무처에서 어떠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쟁점으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 위원님이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법리로 따지고 들자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거든요. 저희가 변호사가 아닌데 법리로 다루면 대책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요. 실무쪽에서 법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위원회 자율권이 있어야 하거든요. 23명이나 징계를 해 놓고 대법이 확실한 심판을 내려 주지 않으면 대체 우리 위원회는 뭐냐는 말이죠? 그리고 위험하다고 보는 건 문서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확정판결을 주지 않고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고법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하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김기봉 위원

- 그래서 제 2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저도 2라운드도 다시 시작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흔들리게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사무처 내에서 드러내 놓고 말은 못 해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이희경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3쪽에서 제일 위에 보면 “지원 배제를 지시하였음.” 이라고 있죠? 그것은 변함없고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서 1번은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2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위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위법이 아니라고 한 것은 각종 명단을 송부하거나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이 아니고 의무로 본 것입니다.

○이회경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판결을 내린 의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리를 나눠서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주는 정치적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저도 이회경 위원님과 비슷한 판단인데요. 예를 들어 적용한 10개의 혐의 중에서 8개는 인정하고 2개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본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지는 효과로는 피고들한테는 감형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취지로 “문화부나 청와대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여지를 살려놓은 것 같다는 겁니다. 법리적인 해석은 법률가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원 전달 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데 대단히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응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봤을 때는 지시는 잘못되었는데 보고하라고 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읽어본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법적으로 판단을 해 줬는데요. 다만, 그 전에 앞서서 심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고하라고 한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이해하기에는 보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원심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져와 봐라.” 이것은 일상적인 범위일 수 있는데요. 위원장이 “이것은 넣고 이것은 빼서 주지 마라.” 이렇게 한 것 까지 일상적인 행위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두가지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고 혼동시켰잖아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문화부 등에서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하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의무로 판단되어 문화부에 앞으로도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런점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일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짧게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최창주 위원님이 70명이 넘게 전통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공유가 되어야 할 내용이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나종영 위원

- 법적인 것들이 부여되었나요?

○박종관 위원장

- 발기인 대회 등 아주 기본적인 논의를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기본적인 발기인 대회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인데 우리의 것을 너무 소외하고 등한시 하고 있으니까요. 각 개인장르는 있는데 종합적인 장르는 처음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문건을 만들어서 취지와 목적은 이렇다는 것으로 해서 분과장들만 뽑아놓고 저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전통문화예술진흥원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최창주 위원

- 한국전통문화예술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런 것 같아요. 성별균형, 연령, 청년 문제 등은 그나마 논의도 계속되고 끊임없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도를 찾아가는데 전통이 소외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전통 소외와 관련된 의견이 있었어요. 이러한 전통소외의 문제는 전통장르 안에서의 인식이 위원 선임에도 있고 위원회 운영에도 있고, 지원제도에도 있다는 것이고요. 전통예술 영역 내에서는 이런 것이 공통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 종사자 분들께서 70명이 넘게 모이셨다는 것은 적게 모인 게 아니죠. 일정정도 장르 내에서는 움직임이 있고요. 때문에 이것은 11일에 추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좀 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봉 위원님 의견을 좀 더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기봉 위원님 의견을 요약하면은요, 전략적인 부분을 동원하자의 문제로 요약되는데요. 공통 면접 부분이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에 놓고 현장소통소위에서 집중해서 논의하시면..

○김기봉 위원

- 공동면접은 문체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공동구성까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당연히 공동구성은 제외해 볼 수는 있죠?

○김기봉 위원

- 그것을 토론회 자리에서 제가 제시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그날은 결론이 안 났어요?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부분은 공동구성인데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추천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제가 제안한 토론문은 추천이 아니라 구성이 핵심이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이희경 위원님도 같이 계셨으니까요. 이해 차원에서 추가 말씀해주시지요.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추천위원회를 16명으로 하고 16명에 대한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이라고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추천위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추천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은 뭐가 되나? 상위에 또 하나의 심의기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김기봉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가 지금 이희경 위원님이 설명하신 구조인가요?

○김기봉 위원

- 아니요. 면접 자리에 문체부만 들어가는 것을.

○박종관 위원장

- 문체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의 구성은 우리 위원회도 함께 추천한 위원 중에서 뽑히는 것이잖아요?

○김기봉 위원

- 지금 현재는 16명에 대한 면접이 없었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최종 후보자 16명이 되기까지가 위원선임 절차인데요.

○김기봉 위원

- 지금은 그 16명을 가지고 면접을 하겠다고 했어요.

○박종관 위원장

- 최종후보자 1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적합도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희경 위원

- 최종적으로 장관이 결정하기 전에 16명이 공개되면서 “이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가?” 여기에 대한 현장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위원추천위원회에서는 16명을 결정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했던 것은 그것에 대한 공개 검증은 했던 거잖아요. 공개 검증의 하나의 방식과 위원회의 역할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비전에 대한 면접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은 장관의 선택폭보다는 현장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쪽으로 문화부는 권한을 조금 위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수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규정력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선임권한 자체는 장관이 갖고 있는 거지만요.

○박종관 위원장

- 현장의 의견이 실리고 적합도와 관련하여 점수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인사권자라도 순위를 쉽게 뒤집거나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 의견이신가요?

○김기봉 위원

- 제 얘기는 1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블랙과 미투에 관련이 있는지를 제보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블랙과 미투를 제보 받지 말고 그 부분을 PT나 토론회로 하자.” 라고 제가 토론문에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문체부의 답변이 그것을 면접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김기봉 위원이 여러 가지 제의를 하셨군요. 거기까지 논의가 모두 끝난 건가요?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문체부가 면접하겠다는 부분을 면접에 예술위가 같이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것이 제 요구였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2차에서는 심지어 공개PT를 하자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문체부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문체부 면접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현장이 그 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미투나 블랙도 포함이 돼요. 본인들에게 해명을 듣고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현장에서 이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보내면 문체부의 면접과정에서 그것을 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문체부의 얘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문체부의 권한을 상당히 위임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고려되었던 사항은 공개PT 같은 것을 했을 때 위원회에 자천으로 들

어오는 공모자의 수가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별과 세대 등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된 방법으로의 면접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4. 폐 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제 268차 전체회의는 마치고, 나머지 부족한 논의는 식사자리로 옮겨서 계속 하시죠.

(의사봉 3타)

(18시 35분 회의종료)

